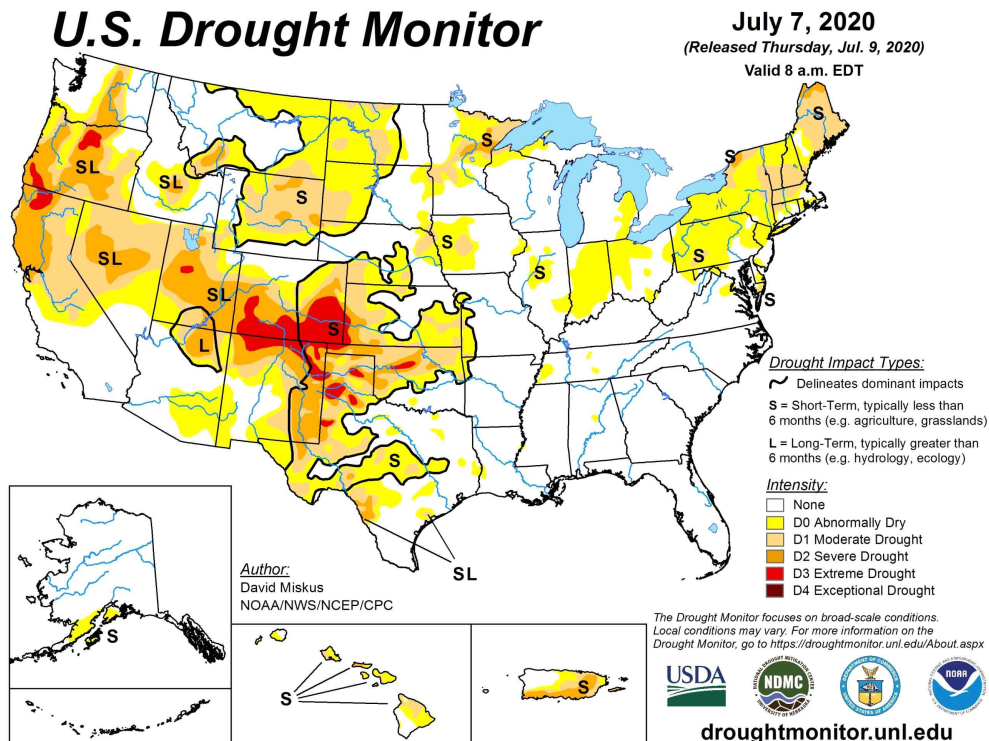


7월 14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28)

□ 미국 기후 현황(7/5~7/11)

뉴저지에서 7월 10일에 사태를 일으킨 열대 폭풍 ‘페이’가 대서양 중부 주들 가운데 일부에 지역적 폭우를 내리고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주로 건조한 경향을 보여왔던 지역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페이가 몰고온 비와 바람의 족적은 비교적 작았고 홍수의 영향도 미미했다. 한편, 중서부 일부에서 여름 작물들이 열과 습기에 민감한 생식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소나기가 유익했다. 미국 대두의 거의 절반(48%)이 7월 12일에 개화했으며 옥수수의 29%가 수염기 중에 있었다. 그러나 옥수수 벨트의 동부 일부에서 불리한 건조가 계속되었고 미시시피 계곡 중부와 인근에서 한 주 내내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국내 중부 구역 전체적으로 점점이 내린 소나기가 대체로 여름 작물들에게 도움이 되었는데 중앙 및 남부 고원 지대에는 더 약한 비가 내렸다 (그리고 극심한 열이 동반되었다). 실제로, 애리조나 남동부에서 텍사스 서부까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 F 높아서 주 후반에는 열이 기록적인 수준까지 쌓였다. 비정상적인 날씨(평년보다 5~10° F 이상의 기온)가 오대호 지역을 뒤덮기도 했는데 이 폭염은 극단적이라기보다는 보다 일정한 편이었다. 그밖에 남동부에는 광범위하게 내린 비와 거의 평년 수준의 기온이 대체로 유리한 재배 조건을 유지했으며 서부 대부분은 건조한 날씨로 뒤덮였다. 북서부에는 서늘한 조건 (평년보다 5° F 가량 낮음)이 지배했으며 포 코너스 주들은 계절풍이 일으킬 강우를 기다렸다.



□ 농업 현황 요약(7/6~7/12)

전국 대부분에서 날씨가 평년보다 따뜻했다. 오대호, 북동부, 평원 북부, 남서부 및 텍사스 일부는 평년보다 6° F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반면, 태평양 북서부와 로키산맥 북부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다. 아이다호, 몬태나 및 워싱턴에 형성된 포켓은 평년보다 6° F 이상 낮은 기온을 보였다. 한 주간 미국 서부 대부분은 평년보다 건조한 상태에 있었다. 미국 중부와 동부의 많은 부분이 평년 이상의 강수량을 경험하여 오대호, 대서양 중부, 남동부 및 텍사스 북동부에서 3인치 이상의 강수량이 기록되었다. 미시시피 계곡 중앙에는 평년보다 건조한 상태가 주목할만 했다.

□ 세계 기후 현황(7/5~7/11)

■ 유럽: 하늘이 다시 맑아지고 기온이 거의 평년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 지역적으로 건조하고 더운 조건들이 유럽 남서부와 남부 일부에서 발달하기는 했지만 - 여름 작물이 생식기로 발달하도록 촉진했다. 최근 유럽 대륙의 중부와 동부 경작지에 습한 날씨가 닥친 후에 비는 대부분 유럽 최북단과 이탈리아 북부에서 동쪽으로 폴란드 남부까지로 국한되었다. 지난 60일 동안 중부 및 동부 유럽의 많은 여름 작물 지역에 평년 수준이나 평년 이상의 강우가 내렸으며 생식기 중에 있는 옥수수, 해바라기 및 콩에게 지난 주의 맑은 하늘과 평년 수준의 기온은 거의 이상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소나기와 뇌우 (10~70 mm)가 지역적으로 특히 폴란드 남부와 주변 지역에서 수분 비축량을 올려주었다. 마찬가지로 잉글랜드에서 스칸디나비아까지 내린 중간-강한 비가 영양기 및 생식기 중에 있는 봄 곡류와 유지 작물을 위해서 수분 공급을 유지 및 개선해주었다. 한편, 프랑스 남서부, 스페인 남부 및 이탈리아 북중부에서 지난 60일간 건조한 조건 (지역적으로 평년의 50% 미만)이 발달하기는 했지만, 스페인, 프랑스 및 서부 중앙 독일 대부분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토양 수분이 충분한 지역들에서 생식기 여름 작물들의 발달을 촉진했다. 또한, 중부 및 북부 스페인에서 대부분의 주요 여름 작물 지역들이 치명적인 폭염 (높은 30도대 및 그 이상)을 피하기는 했지만, 이베리아 반도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7° C 높았다.



■ 구소련(서부): 주초는 매우 덥다가 대조적으로 주말에는 훨씬 더 시원했는데 특히 러시아가 그러했다. 상반기 동안 러시아 남부와 북 코카서스 지역 대부분에서 주간 최고 기온이 40° C에 도달하거나 40° C를 넘어갔는데 (최고 42° C), 서부와 북부의 인접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높은 30도대에 있었던 것이 주목할만 했다. 7월 첫 주는 러시아 남서부에서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더웠던 7월의 첫 일주일로 기록되었는데, 남쪽 지구의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 기간 동안 7일 간의 낮 최고 기온의 평균치가 크라스노다르에서는 35° C (평년 대비 +6° C), 로스토프에서는 37° C (+8° C), 볼고그라드에서는 38° C (+8.0° C) 였다. 이런 극심한 폭염은 위치에 따라 6-8일 연속 계속되었는데 옥수수의 수염 발생기와 크게 일치하였다; 옥수수는 수염기 중에 해로운 열에 가장 취약한데 이 기간 말에 옥수수가 온도-위험기로 빠르게 진입하는 중에 날씨가 급격히 선선했다 (높은 20도대 및 낮은 30도대). 그러나, 그 일주일 간의 열로 잎 말림 및 잠재적인 수분 능력 저하 같은 악영향이 생길 가능성은 여전했다. 과도한 폭염 (36~39° C)이 우크라이나 동부 (이곳의 주요 여름 작물이 열에 더 강한 해바라기이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중앙 및 불가 지구의 인근 일부에도 퍼졌는데 이곳의 옥수수는 여전히 영양기 중에 있었기 때문에 열 피해에 취약하지 않았다. 또한, 남서부의 핵심 옥수수 지역 (크라스노다르)에는 거의 정상 수준의 강우가 보고되었지만, 남부 지구의 중앙 및 북부 일부에서 격심한 단기 건조 (30일 강우량이 지역적으로 평년의 25 % 미만)가 발달했다.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중앙 및 서부를 비롯하여 벨라루스와 몰도바에 발생한 중간-심한 소나기와 뇌우 (10~60 mm)가 생식기 옥수수, 해바라기 및 대두에 유익이 되었다; 이 지역의 여름 작물 전망은 여전히 양호-우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북-중앙 일부에 단기 건조 (30일 강우량이 지역적으로 평년의 25% 미만)가 발달하여 지난 주에 내린 비가 생식기에 다가가거나 들어간 옥수수에게 시기적절하게 되었다.

■ 동아시아: 이 기간 동안 열대성 습기 파도가 동중국을 통과하면서 남동부 일부에 대홍수를 일으켰다. 양쯔 계곡 아래쪽의 남쪽 지구에 내린 총 강우량은 200 mm (지역적으로 500 mm 이상)를 초과로 벼가 침수되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양쯔 계곡 나머지 지역과 북중국 평원에 내린 강우량은 보다 계절성 (25~100 mm)이었다. 한편, 북동부에는 소나기가 더 가볍게 (25 mm 미만) 내려서 생식기로 들어가고 있는 옥수수, 대두 및 벼를 위해서 양호한 토양 수분을 유지해주었다. 그러나, 6월 1일 이후로 수분량이 평년의 절반 이하인 라오닝 성은 계속 비가 오지 않고 있다. 서쪽으로 면화는 계절성 온기, 충분한 관개 및 열 스트레스 부재 덕분에 양호-우수한 상태에 있다. 그 지역의 다른 곳들로 한반도에는 건조한 날씨 포켓이 산재된 가운데 소나기 (25~100 mm)가 보고되었고 일본 남부에는 홍수 (200~4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일어났다.

■ 호주: 밀 벨트에 산발적인 소나기 (일반적으로 10 mm 미만, 지역적으로는 더 많이) 가 내려서 영양기 밀, 보리 및 캐놀라에 대한 지역의 수분 공급을 유지해주었다. 그 소나기들이 몇몇 겨울 작물들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주요 농업 지역에서 보다 균일한 작물 발달을 촉진하려면 더 광범위한 강우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상대적으로 온화한 겨울 날씨 (최고 기온이 대체로 섭씨 10도대)가 순 증발 손실을 제한하여 더 건조한 날씨가 우세한 지역에서 작물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겨울 하반기 중에 기온이 오르고 작물이 생식기에 다다르고 있어서 향후 몇 주 및 몇 달 내에 풍부한 비가 더 많이 내려야 작물 전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아르헨티나: 거의 모든 농경지에서 온화한 중에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여 계절 현장 작업을 완료할 수 있게 해주었다. 먼 남쪽 (최남단 부에노스아이레스)과 북동쪽 (지역적으로 강우 총량이 10 mm 이상인 차코와 포르모사의 동쪽 구역을 포함하여) 이외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살타까지 완전 건조가 뻗어 있는 중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서늘한 날씨에 일반적인 건조가 동반되어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 대비 2° C 낮았다. 낮 최고 기온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섭씨 낮은 10도대에서 포르모사 동부의 낮은 30도대까지 다양했고 남부와 북서부의 많은 농업 지역에서 결빙이 흔하게 발생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7월 8일 현재 옥수수과 면화는 각각 89% 및 99% 수확되었고 밀 파종은 작년과 같은 속도 (81%)로 진행되었고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야외 작업이 더 빠르게 진행되어서 (작년의 67% 대비 7% 완료) 다른 주들에서의 지체를 상쇄했다. 비슷하게 보리는 작년의 73% 대비 77% 파종되었다.

■ 브라질: 소나기가 브라질의 주요 남부 생산 지역에서 밀에 대해서 대체로 유리한 조건을 유지했다. 파라나 남부에서 남쪽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을 지나기까지 내린 총 강우량은 10에서 25 mm를 초과했다. 온화한 날씨에 소나기가 동반되었고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섭씨 낮은 20도대 및 중간 20도대 사이에 있었고, 밤 최저 기온은 5° C 미만으로 떨어졌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차 작물 옥수수는 7월 6일 기준으로 8% 수확되었고 남은 작물의 62%는 성숙기에 있었다; 밀은 97% 파종되었다. 7월 10일 현재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밀은 95% 파종되었다. 그 밖에 브라질의 중앙 및 북동부 내륙에서 계절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옥수수와 면화의 빠른 발달을 촉진했고 동부 해안을 따라 대체로 가벼운 소나기 (지역적으로 25mm 초과)가 내렸다. 마토 그로소에는 7월 10일 현재 2차 작물 옥수수가 61% 수확되어 작년 속도 대비 15 포인트 뒤쳐졌고 면화는 5% 수확되어 작년보다 (7%) 다소 뒤쳐졌다.